

Artist's Statement

유충목

나는 기억을 이야기로 정리하지 않는다.
사건의 순서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그것이 남기는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
기억은 언제나 완결된 서사로 남기보다는, 반복과 침전 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축적된다.

나의 작업은 무엇을 말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표면 위에 남겨진 흔적들은 하나의 이미지라기보다,
시간이 쌓이고 사라지며 만들어낸 조건에 가깝다.

나는 화면을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밀도, 간격, 반복, 그리고 멈춤을 통해
인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조로 남긴다.
이 구조 안에서 의미는 주장되지 않고,
천천히 떠오르거나 끝내 도착하지 않은 채 머문다.

작업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 있지 않다.
겹쳐진 시간과 사라지지 않은 감각들이
하나의 상태로 화면에 남아 있을 뿐이다.

나는 답을 제시하기보다,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
이 작업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는 이의 인식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기를 기다린다.